

친밀한 이성관계에서 성격이 관계만족 및 개입에 미치는 영향

이 경 성[†]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성격특성들이 상호이해, 관계만족 및 관계개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연애 중인 58쌍의 연인들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5개 성격특성(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및 개방성)과 성역할 성향(남성성, 여성성, 전통적 성역할신념), 관계변인들(상호이해, 관계만족, 및 관계개입)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응답하였다. 먼저 여러 가지 성격특성과 관계변인들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연인들은 두 사람 모두 외향적일수록 그리고 호감성 수준이 높을수록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를 이해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전통적 성역할신념에서 서로 불일치할수록 관계에 더 불만족하였다. 다음으로 어떤 성격특성이 남성과 여성의 상호이해, 관계만족 및 관계개입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중다회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들은 자신이 호감성 수준이 높고 남성적일수록 서로를 잘 이해한다고 지각하였으며 관계에 더 만족하였다. 반면에 여성들은 외향적일수록 서로를 잘 이해한다고 지각하였으며, 상대 남성이 정서적으로 안정적일수록 관계에 더 만족하고 관계에 더 개입하였다. 이외에 상대 남성의 여성성도 관계 개입에 영향을 미쳐서 여성들은 상대 남성이 여성적일수록 관계에 더 개입하였다.

주요어 : 성격특성, 성역할성향, 상호이해, 관계만족, 관계개입, 이성관계

[†] 교신저자 : 이경성,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3가 53번지
E-mail : seonga@skku.edu.

한 해에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하는 부부들은 전체 이혼의 50%에 달할 정도로 개개인이 지니는 성격특성은 관계에 만족하고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성격차이를 이유로 내세우는 부부들은 상대의 성격이 어떤 점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괴팍하다거나 혹은 자신과 맞지 않다고 보고한다. 이들의 보고처럼 성격특성과 관계만족 및 안정성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자들도 어떤 성격특성들이 관계만족 혹은 관계의 안정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혹은 커플을 이루는 두 사람이 특정 성격특성에서 유사한 수준이 관계만족 혹은 안정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를 다룬다. 본 연구는 이 두 관점에서 성격특성과 관계만족의 관계를 다루고자 한다.

성격특성과 관계만족 혹은 관계 안정성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크게 결혼 전 관계와 결혼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약혼하거나 결혼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성격특성과 관계만족의 관련성을 다룰 경우, 이들의 성격이 관계 초기부터 이후까지 안정적이었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로 유사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Anderson, 2001) 이 결과들로 성격특성이 관계의 만족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지 결론짓기 어렵다. 반면에 교제 중인 연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성격특성과 관계만족 혹은 해체를 다룬 연구들에 의하면 개개인이 지니는 성격특성들 및 성격의 불일치가 결혼 전 연인관계의 만족 혹은 해체 뿐만 아니라(예, Burgess & Wallen, 1953; Simpson, 1987) 이후 결혼관계의 안정성까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Holman, Birch, Carroll, Doxey, Larson, Linford, 2001). 따라서 교제 중인 연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어떤 성격특성들이 관계만족을 유

의하게 예측하는지, 그리고 연인들이 어떤 성격특성에서 서로 유사할수록 관계에 만족하는지 다음으로써 결혼전 관계 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 관계의 만족에 각각의 성격특성이 기여하는 바도 짐작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성격특성이 관계만족 및 개입에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 어떤 성격특성이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떤 연구에서는 자신의 어떤 성격특성이 관계만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를 다루는 반면에 다른 연구에서는 상대의 성격특성과 관계만족의 관련성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들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기술할 때 이에 대한 구분 없이 결과를 해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만족과 성격특성의 관련성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자신과 상대의 성격특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자신과 상대의 성격특성 가운데 어떤 성격특성들이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각각 살펴봄으로써 관계만족에 기여하는 자신과 상대의 성격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성격특성과 관계만족의 관련성을 다루는 일부 연구자들은 개인들을 구분하는 여러 성격특성들이 관계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개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MMPI, 16PF, 혹은 NEO-성격검사 및 IPIP 등 널리 사용되는 성격검사들을 이용한다. 반면에 성격특성과 관계만족의 관계를 다루는 또 다른 연구자들은 연구자가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일부 특성(예, 정서적 안정성, 부정성)만을 한정해서 다루는데 이 연구들 가운데서도 성역할과 관계만족의 관련성을 다루는 연구들이 현저하게 많다. 성역할과 관계만족의 관련성을 다루

는 연구들은 자극의 특성 예컨대 외모나 인적 배경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관계 초기와 달리 안정적 관계에서는 성역할이 중요하다는 Murstein의 SVR(자극-가치-역할) 이론(1970)을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들을 통해서 더욱 부각되었으며, 이후로 많은 연구자들이 성역할과 관계만족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PIP와 같은 성격검사들이 대체로 관계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성격요인들을 포함한 반면에, 유독 성역할 성향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 근거해서 IPIP와 같이 일반적으로 개인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얻은 성격특성들 이외에도 성역할 성향을 포함하여 이 성격특성들과 관계만족의 관계를 다루고자 한다.

최근 개인을 구분하는 구체적 성격특성들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대부분 성격을 크게 5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연구하고 있다. 성격을 5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다루는 연구자들은(예, Goldberg, 1981; Norman, 1963) 성격구조의 사전적 연구 결과들로부터 다음의 5개 요인이 개인 간 차이를 구분하는 큰 범주들이라고 제안한다: 1) 외향성(지배적이고 외향적 대 복종적이고 내향적), 2) 호감성(따뜻하고 신뢰적 대 차갑고 의심 많은), 3) 성실성(믿을 수 있고, 잘 조직화된 대 신뢰할 수 없고 비조직화된), 4) 정서적 안정성(안정적이고 차분한 대 신경질적이고 변덕스런), 그리고 5) 지성/상상성(개방성으로도 불리움, 지각력이 있고 호기심이 강한 대 지각력이 없고 호기심이 없는).

성격의 5요인과 관계만족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의 예로서 Rogers(1999)는 연애 중이거나 결혼한 103쌍의 커플들에게 NEO-성격검사(수정판)와 이자적응척도(DAS)를 실시하여서 5개 성격특성과 관계만족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이 연구에서 자신의 정서적 안정성, 성실성 및

호감성이 관계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외에도 Condit(1999)은 사람을 16개 성격특성으로 구분한 16PF 검사로 성격을 측정하고 이와 관계만족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지배성, 불안, 및 자기 통제 특성에서 극단의 점수들을 갖는 커플일수록 관계에 덜 만족하였으며, 지적 능력이 높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불안 수준이 낮을수록 관계에 더 만족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성격의 5요인과 관련지어 설명하면 자신의 개방성과 정서적 안정성이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Lester, Haig, 및 Monello(1989)의 연구에서도 자신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할수록 그리고 상대방이 외향적일수록 관계에 불만족하여서 자신의 정서적 안정성과 상대방의 외향성이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침을 입증하였다. 한편 Bentler와 Newcomb(1978), 그리고 Kelly와 Conley(1987)의 연구에서는 상대방이 성실하지 않을수록 관계에 불만족하였으며, Burgess와 Wallen(1953), 그리고 Kelly와 Conley(1987)의 연구에서는 상대의 호감성 수준이 낮을수록 불만족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을 보면, 자신의 성격특성과 관계만족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5개 성격특성 가운데 정서적 안정성이 일관되게 관계만족을 예측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대의 성격특성과 관계만족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5개의 성격특성들이 관계만족과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 살펴본 연구들을 개관한 Shackelford와 Buss(1996)는 5개 성격특성들 가운데 외향성을 제외한 모든 성격특성이 관계만족과 관련된다고 결론지었다. 구체적으로 호의적이고 성실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개방적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한 남성과 여성이 대체로 관계에 더 만족해한다고 결론지

었다. 이들의 결론을 다시 정리하면 상대의 5개 성격특성 가운데 외향성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성격특성, 즉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및 개방성이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4개 성격특성과 관계만족이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Buss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하였다(Buss, 1991). 그는 배우자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덜 성실하며, 호감성 수준이 낮고 덜 개방적일수록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지우기 쉽고, 관계에 덜 이익을 줌으로써 덜 만족하게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107쌍의 결혼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5요인과 결혼만족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남성과 여성은 배우자의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및 개방성 수준이 낮은 경우 여러 가지 다양한 불만의 소지를 가지며 이러한 불만이 결혼생활에 불만족하게 함을 입증하였다.

한편 Buss와 Shackelford(1997)는 5개 성격특성과 관계만족의 관련성을 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볼 경우, 성별에 따라서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이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를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진화심리학적 관점으로 보면 일부일처제의 가장 심각한 위반은 배우자의 부정이다. 따라서 부정(unfaithfulness)은 남녀 모두에게 가장 큰 비용(costs)일 수 있다. 그런데 부정의 결과로 보면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은 반면에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확실하기 때문에 남편의 부정보다 아내의 부정이 남편에게 훨씬 더 큰 비용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남편의 부정보다 아내의 부정이 결혼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부정을 저지르기 쉬운 여성, 즉 성실성이 낮은 여성과 결혼한 남성들이 결혼생활에 가장 불만족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배우자의 부정, 5개 성격특성 및 결혼만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내의 성실성 수준이 낮을수록 남편에게 충실하지 않아서 아내의 부정과 성실성이 관련된 반면에 남편의 부정은 5개 성격특성과 무관하였다. 또한 아내의 성격과 관련해서 남편의 결혼만족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은 배우자의 성실성이었다.

Buss와 Shackelford는 결혼생활에서 배우자의 부정 이외에 성차를 보이는 다른 특성으로 신체적 학대를 고려하였다.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신체적 학대는 아내가 남편에게 행하는 신체적 학대보다 더 상해가 크기 때문에(Daly & Wilson, 1988) 신체적 학대는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큰 비용(costs) 가운데 하나이다. 이들은 Buss(1991)의 연구에서 여성들의 경우 남편의 호감성 및 정서적 안정성이 남편이 자신을 학대했다는 불평과 부적 상관성이 있었음에 근거해서 아내의 불만족과 남편의 호감성 및 정서적 안정성이 강한 관련성을 보이리라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이 가설도 지지되어서 남편의 성격과 관련해서 아내의 결혼만족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은 남편의 호감성과 정서적 안정성이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정리하면, 자신의 5개 성격특성 가운데 관계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은 정서적 안정성이며, 상대의 5개 성격특성 가운데 관계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은 남성의 경우 상대 여성의 성실성, 여성의 경우 상대 남성의 정서적 안정성과 호감성이었다.

국내에서 5개 성격특성과 관련해서 관계만족을 다룬 연구들은 별로 없으며 몇몇의 연구도 모두 부부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성격특성과 결혼만족의 관계를 다룬 국내 연구들 가운데 이선희(2000)는 부부의 MBTI 성격 유형의

유사성과 결혼만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내향적인 부부보다 외향적인 부부들이 결혼생활에 더 만족하였으며, 외향성에서 부부의 성격유형이 불일치한 부부들의 경우 아내가 외향적이고 남편이 내향적일 때보다 남편이 외향적이고 아내가 내향적인 부부들의 결혼만족 수준이 높았다. 한편 오선주(2002)는 결혼만족과 관련성이 높으리라 가정되는 성격특성들로 본인과 배우자의 안정성, 지배성, 사회성(sociability) 및 책임성을 들고 이 특성들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녀의 연구에서는 남편 본인이 안정적일수록, 그리고 배우자인 아내가 사회성이 높을수록 남편이 결혼생활에 만족하였으며, 아내와 남편이 안정적일수록 아내가 결혼생활에 만족하였다. Buss와 Shackelford(1997)가 제안한 성격특성 즉, 성실성과 호감성 및 안정성 가운데 오선주(2002)는 안정성만을 다루었는데 오선주의 결과에서 남편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아내가 결혼생활에 만족하였기 때문에 안정성과 관련해서 볼 때 Buss와 Shackelford의 예언이 지지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을 구분하는 일반적 구분법 가운데 5요인 접근법에 따라서 5개 성격특성을 다루고 이외에 성역할 성향들을 측정하여 이 성격특성들 가운데 어떤 성격특성들이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ckes(1993)는 남성적 남성과 여성적 여성이 연인관계를 이룰 경우 이를 전통적 성유형화된 조합이라 부르는데 이러한 연인들이 관계에 가장 불만족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결론은 성역할검사를 개발한 Bem(1974)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각각 도구적 경향(즉, 남성적이고 행위적 고정관념)과 표현적 경향(즉, 여성적 고정관념, 공유의 가치를 추구하고 정서적인)을 반영하는 성격차원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지적에

근거해서 해석하면 놀라울 만한 일이 아니다. 표현적이고 양육적인 여성이 표현성 및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낮은 남성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원하는 친밀성을 획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남성과의 관계에 만족하기 어렵다. 실제로 어떤 성역할 지향을 지닌 사람들이 관계에 만족하는지를 살펴본 연구를 보면 상대의 실제 성과 무관하게 “여성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이 보다 관계에 만족하였다(예, Houts, Robins, & Huston, 1996). 남성의 남성성과 여성성이 여성의 관계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또 다른 연구에서도(Bradbury, Campbell, & Fincham, 1995) 남성들이 남성적 특성들을 덜 소유했을수록 여성들이 관계에 더 만족하였다. 이 결과들을 요약하면 남성성 성향이 낮거나 여성성이 높은 사람들과 연인인 사람들이 관계에 보다 만족할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전통적 성역할신념을 전통적인 성역할 특징을 유지하려는 신념과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남성과 여성들의 특성관련 고정관념에 대한 집착으로 정의하면(김양희, 정경아, 2000) 전통적 성역할신념이 높은 사람일수록 남성은 남성성이 높고 여성은 여성성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를 위의 선행연구들에 적용해서 해석하면 전통적 성역할신념이 높은 사람과 연인인 사람들일수록 관계에 더 불만족하기 쉽다. 이의 예언과 일치되게 전통적 성역할신념과 관계만족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 성역할신념이 높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관계에 더 불만족하였으며 특히 남성들의 전통적 성역할신념이 높을수록 여성이 관계에 더 불만족하였다(Kelly & Conley, 1987; Whyte, 1990).

성역할신념과 만족의 관계를 다룬 국내 연구

가운데 최규련(1984)과 정승혜(1988)는 부부들의 성역할 태도가 결혼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들의 연구에서 남편이 전통적인 태도를 지니기 보다 근대적인 태도를 지닐 경우 남편과 부인이 모두 결혼생활에 만족하였으며, 부인의 성역할 태도는 부부의 결혼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로써 전통적 성역할신념과 만족의 관계를 다룬 국내외 연구들에서 모두 상대 남성의 전통적 성역할신념은 여성의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만족 이외에도 관계의 안정성을 예측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인 관계에 개입된 수준을 다루고자 한다. 관계개입이 관계의 지속이나 해체의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Thibaut와 Kelley(1959)의 상호의존이론에서 처음으로 제안된 이래, Levinger(1979)와 Rusbult(1980, 1983) 등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루어졌다. 이들은 관계에 개입될수록, 즉 관계에 의존하고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관계를 해체하기 어렵다고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은 개입과 관계해체의 관계를 다룬 많은 연구에서 지지되었다(예. Rusbult, 198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계의 안정성을 예측하는 기준으로 관계개입을 다루고자 한다. 관계에의 개입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들을 직접 다룬 연구들은 없으나 관계만족과 안정성을 동일 차원의 연속선상에서 해석하면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들에 대한 예측은 모두 관계개입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성격특성들을 지닌 사람들이 관계에 더 개입하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한편 어떤 성격특성이 관계만족과 관련되는지를 살펴보는 것과 성격특성의 유사성 수준과 관계만족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어떤 성격특성들이 관계만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를 살펴보면서 또한 연인들이 어떤 성격특성에서 서로 유사할수록 관계에 만족하는지도 다루고자 한다.

성격의 유사성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성격이 서로 유사할수록 관계에 만족하는지, 서로 불일치할수록 관계에 만족하는지와 관련된 논쟁은 오래 전에 일단락된 주제로서 유사성과 만족을 다루는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상대방과 서로 유사할수록 유사하지 않은 쌍들보다 관계에 더 만족함을 보여주었다(예, Allen & Thompson, 1984). 유사성은 초기 매력의 결정에서부터(Berscheid & Walster, 1978) 이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중요하며, 유사성을 다룬 연구들은 상대방이 사회경제적 배경의 면에서 서로 유사한지에서부터 정치적 태도(Byrne & Blaylock, 1963), 개인적 선호(Graddock, 1994), 도덕적 기준과 성(McAllister, 1992), 심지어 음식의 선호(Ferreira & Winter, 1974)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성격의 유사성이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는 연구들 가운데 Rogers(1999)는 유사한 성격을 지닌 커플들이 관계에 만족하는지 서로 보완이 되는 성격을 지닌 커플들이 관계에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연구에 참여한 103 커플들 중에 59쌍이 결혼한 커플들이었으며 나머지 44쌍은 연애중인 커플들이었다. 이들에게 NEO-성격검사(수정판)와 이차적응척도(DAS)를 실시하고 NEO 검사에서 얻어진 성격특성들에서 커플들이 서로 유사할수록 관계에 만족하는지 살펴본 결과, 결혼한 부부들과 연애 중인 연인들 모두 성격의 유사성과 관계만족의 관계가 유의하였다. 또한 Conditt(1999)

은 사람을 16개 성격특성으로 구분한 16PF검사로 성격을 측정하고 이와 관계만족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2차요인인 5개 성격특성을 포함한 21개의 16PF 요인들 가운데 13개 특성에서 커플끼리 서로 유사할수록 관계에 만족하였다. 이외에도 여러 연구자들(예. Acitelli, Douvan, & Veroff, 1993)이 파트너들 간 유사성의 지각이 관계만족과 관련됨을 보고하였다. 즉, 커플들은 서로 유사하다고 지각될수록 더 만족하였다.

한편 Craddock(1991)은 결혼생활에서의 역할 기대와 결혼만족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결혼생활에서의 역할에 대해 유사한 태도를 가질수록 결혼만족 수준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그는 서로 유사한 가치와 역할기대를 소유한 커플들이 유사한 목표설정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들을 촉진시킨다고 가정하였다. 반면에 태도가 유사하지 않은 커플들은 갈등이 있는 목표와 기대 때문에 싸우기 쉽고 결혼생활에 불만족하다는 것이다.

Swim과 Surra(1999) 또한 연애 중인 59커플들을 대상으로 성역할과 관련된 활동들에 대한 선호도, 실제 성역할과 관련된 활동의 수행 및 관계만족을 측정하여 성역할 성향과 관계만족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두 사람 모두 전통적인 활동들을 선호하는 커플들이 전통적인 성역할과 관련된 활동들을 싫어하는 커플들보다 관계에 더 만족하였다.

성격특성과 관계만족의 관련성을 살펴본 국내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커플들이 5개의 성격특성 및 성역할 성향에서 서로 유사할수록 관계에 만족하며 관계에 더 개입하리라 가정된다. 또한 성격의 5요인 가운데 자신의 정서적 안정성이 관계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리라 가정되며, 남성의 경우 상대 여성의 성실성이, 여성의 경우 상대 남성의 정서적 안정성, 호감

성 및 성역할 성향이 관계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리라 가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관계 초기의 연인들에게 5개 성격특성과 성역할 성향을 측정하고 이 성격특성 가운데 어떤 성격특성이 관계만족 및 관계에 개입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각 성격특성에서의 유사성이 관계만족 및 관계 개입과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만족이나 관계개입과 더불어 상호이해를 포함하여 이 변인과 성격특성의 관계를 다루었다. Anderson(2001)은 관계를 이루는 성원들의 성격이 서로 유사할수록 생각이 서로 유사하며 따라서 서로를 이해하기 쉽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를 형성하는 초기 단계의 사람들일지라도 성격이 서로 유사할수록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관계만족과 개입 이외에 상호이해 수준을 함께 다루었다.

방 법

조사의 대상

현재 교제 중인 58쌍의 남녀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는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 가운데 현재 교제 중인 학생들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다음, 자신과 자신의 연인을 모두 강의실로 오게 하여 실시하였다. 연인들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은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었으며 상대는 동일 대학이나 다른 대학의 대학생이거나 혹은 직장인이었다. 연인들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연인들 가운데 93%가

대학생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1세(남 21.3세, 여 20.6세)였고 평균 교제기간은 9개월(범위: 1개월~36개월)이었다.

조사의 절차

조사대상들에게 상호이해, 관계만족 및 관계 개입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응답하게 한 다음에 자신의 성격을 측정하는 문항에 답하게 하였다.

측정도구

5요인

영어를 사용한 연구들에서 얻어진 5개의 요인구조, 즉 (1)외향성, (2)호감성, (3)성실성, (4)정서적 안정성, (5)지성/상상(개방성으로도 불리움)이¹⁾ 국내에서도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연구 결과(Hahn, Lee, & Ashton, 1999)에 의하면, 국내에서는 5번째 요인인 지성/상상이 두 개의 독립적인 요인으로 구분되는 6요인으로 해석된 점을 제외하고 다른 4요인이 모두 추출되어 성격의 구조를 5개 요인으로 보는 것이 크게 무리가 없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개의 성격특성을 측정하고 있는 IPIP(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 2001)의 50문항을 사용하였다. IPIP는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및 개방성을 각각 10문항으로 측정한다. 각 요인이 측정하는 일부 문항들 및 문항들의 내적일치도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1) 5번째 요인인 지성 혹은 상상은 5요인구조를 실시한 문화권에 따라서 비관습성(Unconventionality or low conventionality, Caprara & Perugini, 1994)이나 신뢰성/완전성(Integrity or Trustworthiness, De Raad & Szirmak, 1994)으로도 불린다.

성역할 성향

성역할 성향 가운데 남성성과 여성성은 정진경(1990)이 표준화한 성역할검사를 사용하고 전통적 성역할신념은 김양희와 정경아(2000)가 개발한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정진경(1990)이 표준화한 성역할검사는 표준화한지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요인의 구조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275명의 대학생에게 60문항으로 된 성역할검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남성성과 여성성을 측정하는 40개 문항을 요인분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의 개수를 두 개로 한정할 경우 변량의 64%가 설명되었으나 여성성을 측정하는 문항들 가운데 10문항이 .30 이하의 요인부하량을 보였다. 세 요인까지 추출할 경우, 변량의 78%가 설명되었으며, 이때 여성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두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여성성을 측정하는 문항 가운데 차분하다, 암전하다, 꼼꼼하다, 섬세하다, 깔끔하다, 근엄하다, 알뜰하다와 남성성을 측정하는 문항 가운데 과묵하다는 세 번째 요인으로 구성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세 번째 요인을 추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²⁾. 문항-요인간 상관인 .30이하여서 낮은 문항들을 제외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남성성은 17문항, 여성성은 9문항을 평균하여 추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측정하는데 사용한 문항들과 문항들의 내적일치도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2) 이외에도 여성성을 측정하는 문항 가운데 어질다, 감정이 풍부하다, 여성적이다, 순종적이다와 남성성을 측정하는 문항 가운데 털털하다는 요인 부하량 및 문항-요인간 상관인 .30이하여서 제외하였으며, 민감하다는 세 요인 가운데 어떤 요인에도 .30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이지 않아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성역할 성향을 측정하는 또다른 지표로서 전통적 성역할신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양희와 정경아(2000)가 개발한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가운데 가정생활척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김양희와 정경아는 가정, 교육, 직업, 및 사회문화의 생활영역별로 성차별과 남녀평등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를 개발하였다. 이들이 개발한 4개의 하위영역 가운데 가정생활 영역의 문항들을 사용하여 전통적 성역할신념을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일치도 α 는 .79였다(부록 1 참조).

상호이해, 관계만족, 및 관계개입

상호이해, 관계만족 및 관계개입은 이경성과 한덕웅(2003)의 논문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결혼 전 이성관계에 적합하도록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상호이해(10문항), 관계만족(9문항), 및 관계개입(7문항)을 측정하는 26문항을 요인분석하여 요인의 수를 3개 추출한 결과, 변량의 79%가 설명되었으며, 각 문항들은 당초 각 변인을 측정하고자 의도된 변인들에 소속되었다. 각 변인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문항들과 문항들의 내적일치도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5개의 성격을 측정하는 50문항은 모두 5점 척도(1 매우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성역할 성향 및 상호이해, 관계만족, 그리고 관계개입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모두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자료의 분석

먼저 조사에 참여한 연인들의 5개 성격요인과 성역할 성향, 그리고 관계만족, 상호이해 및

관계에 개입된 수준을 분석하였다. 그런 다음 연인들이 성격특성들과 관계변인들의 측정치들에서 유사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각 변인들의 상관을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신과 상대의 각 성격특성들이 관계만족, 상호이해, 및 관계개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하였다.

결 과

전반적 경향

조사에 참여한 연인들의 성격특성들과 상호이해, 관계만족 및 관계개입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표 1 참조). 먼저 5개 성격 요인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정서적 안정성을 제외한 다른 성격특성에서 대체로 남녀의 차이 없이 중간수준의 평가값을 보였다. 정서적 안정성에서는 남녀에 따른 차이를 보여서 여성들($M=2.71$)이 남성들($M=3.28$)보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지각하였다, $T(115)=3.98$, $p<.0001$. 조사에 참여한 연인들은 남성성과 여성성 수준이 다소 높은 편이었고, 덜 보수적이었으며 특히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덜 보수적이었다. 그리고 조사에 참여한 연인들은 자신의 관계에 상당히 만족하고(남성 $M=6.19$, 여성 $M=5.88$), 서로를 이해하며(남성 $M=5.26$, 여성 $M=5.14$), 관계에 개입되어 있었다(남 $M=5.18$, 여 $M=4.81$).

각 측정치들에서 연인들의 유사성 수준

연인들이 성격특성, 상호이해, 관계만족, 및 관계에 개입된 수준에서 서로 유사한지 알아보

표 1. 성격특성, 상호이해 및 관계만족의 성별 평균, 연인간 상호상관, 및 성격특성과 자신과 상대의 상호이해 및 관계만족의 유목내 상호상관

변인들	상관관계(R)								
	남	여	커플반응	자신			상대		
	MEAN(SD)	MEAN(SD)		간 상관	상호이해	관계만족	관계개입	상호이해	관계만족
외향성	3.29(0.72)	3.41(0.69)	0.029	0.218*	0.115	0.084	0.208*	-0.041	0.034
호감	3.73(0.46)	3.66(0.57)	0.260*	0.269**	0.109	0.104	0.211*	0.104	-0.037
성실	3.31(0.67)	3.21(0.71)	0.224+	0.224*	0.105	0.013	0.188+	0.116	0.072
정서적 안정	3.28(0.75)	2.71(0.78)	0.136	0.178+	0.203*	0.162+	-0.074	-0.022	-0.034
개방성	3.62(0.65)	3.47(0.56)	-0.104	0.131	0.047	0.027	0.013	-0.035	0.091
남성성	4.84(0.71)	4.58(0.66)	-0.069	0.296**	0.189*	0.082	0.127	-0.040	0.066
여성성	5.22(0.78)	4.97(0.87)	0.008	0.176+	0.103	0.200*	0.149	0.074	-0.062
성역할신념	3.54(0.88)	2.46(0.75)	0.148	0.095	-0.044	0.058	0.056	-0.271**	-0.166+
관계만족	6.19(0.56)	5.88(0.71)	0.298*						
상호이해	5.26(0.78)	5.14(0.85)	0.507***						
개입	5.18(0.88)	4.81(1.00)	0.171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하였다³⁾. 양자관계의 자료로 상관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각 측정치에서 양자의 변량이 동질적이어야 한다. 예컨대, 남성의 관계만족 측정치와 여성의 관계만족 측정치에서의 변량이 같아야 한다. 각 측정치에서 남녀 간 변량의 동질성 가정이 충족되는지를 살펴본 결과, 성격특성들과 관계 변인들에서 모두 남녀 간 변량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동질

성 가정이 충족되었다. 따라서 각 측정치들에서 연인간 상호상관을 분석하였으며, 이 분석은 양자간 상호상관계수 및 상관계수의 유의성을 계산하는데 흔히 쓰이는 Gonzalez와 Griffin(2000)이 제안한 공식으로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 조사에 참여한 연인들은 다정다감하고 남에게 친절하여 호감을 주는 수준이 서로 비슷하였다, $r = .26, p < .05$. 성실성도 .10 수준에서 유사한 반면에, $r = .22, p < .10$, 외향성이나 정서적 안정 및 개방성의 수준은 서로 유사하지 않았다. 남성성, 여성성, 및 전통적 성역할신념의 수준 또한 서로 유사하지 않았다. 반면에 연인들은 관계에 만족하는 수준에서 서로 유사하였으며, $r = .30, p < .05$, 서로를 이해하는 수준도 유사하였다, $r = .51, p < .001$.

3) 이성관계처럼 양자 성원들을 성(sex)과 같은 의미 있는 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distinguishable dyads)에는 구분변인이 각 측정치에 미치는 변량의 효과를 제외하여야 한다. 예컨대 성이 구분변인인 경우 성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통제하고 분석하여야 두 표본(남성, 여성 표본)이 동일한 변량을 가진 전집으로부터 얻어진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후 각 측정치들에서 연인들의 점수 간에 상호상관을 분석할 때 성차를 통제하고 분석하였다.

상호이해, 관계만족 및 관계개입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

성격특성들 가운데 어떤 성격특성들이 자신과 상대의 상호이해, 관계만족 및 관계개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 변인들 간 상관관계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신의 성격특성과 자신의 상호이해, 관계만족 및 관계개입의 상관

성격특성 가운데 어떤 성격특성이 자신의 상호이해, 관계만족 및 관계개입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자신의 상호이해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성격특성은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및 남성성이었다. 즉, 자신이 외향적일수록($r=.22$), 호감성 수준이 높을수록($r=.27$), 성실할수록($r=.22$), 그리고 남성적일수록($r=.30$) 상대방과 대화를 많이 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수준이 높다고 지각하였다. 정서적 안정성과 여성성은 상호이해와 .10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개방성과 전통적 성역할신념은 상호이해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관계만족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성격특성은 정서적 안정성과 남성성이었다. 즉, 자신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수록($r=.20$), 그리고 남성적일수록($r=.19$) 상대방과의 관계에 만족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관계개입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유일한 성격특성은 여성성으로서, 여성적일수록 관계에 더 개입하였다, $r=.20$, $p<.05$.

자신의 성격특성과 상대방의 상호이해, 관계만족 및 관계개입의 상관

자신의 성격특성 가운데 어떤 성격특성에서

상대방의 상호이해 수준에 대한 지각, 관계만족 및 관계개입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상대방의 상호이해에 대한 지각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성격특성은 외향성과 호감성이었다. 즉, 자신이 외향적일수록($r=.21$), 그리고 호감성이 높을수록($r=.21$) 상대방이 자신과 대화를 많이 하며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지각하였다. 성실성은 .10 수준에서 상대방의 상호이해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정서적 안정성과 개방성, 그리고 남성성과 여성성 및 전통적 성역할신념은 상대방의 상호이해에 대한 지각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상대방의 관계만족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유일한 성격특성은 전통적 성역할신념으로서 자신이 보수적일수록 상대가 관계에 불만족하였다, $r=-.27$, $p<.01$. 그리고 관계개입과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성격특성은 없었으며, 전통적 성역할신념만 .1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경향을 보였다.

자신과 상대의 성격특성이 상호이해, 관계만족 및 관계개입에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 성격특성과 관계변인들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상호이해, 관계만족 및 관계개입에 어떤 성격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남성의 상호이해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들을 살펴본 결과, 남성들은 자신의 호감성 수준이 높을수록($\beta=.353$, $p<.01$), 자신이 남성적일수록($\beta=.350$, $p<.01$), 그리고 상대 여성이 성실할수록($\beta=.353$, $p<.01$),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를 잘 이해한다고 지각하였다. 반면에 여성들은 자신이 외향적일수록($\beta=.276$, $p<.05$), 그리고 상대 남성이 남성적일수록($\beta=.276$, $p<.05$)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를 잘 이해한다고 지각하였다.

다음으로 남성들의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들을 살펴본 결과, 남성들은 자신의 호감성 수준이 높을수록($\beta=.32, p<.05$), 남성적 일수록($\beta=.28, p<.05$) 관계에 만족하였으며, 상대 여성의 성격특성은 .05 수준에서 남성들의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한편 여성들의 경우에도 자신의 성격특성은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에 상대 남성의 정서적 안정성이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쳐서 상대 남성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었을수록($\beta=.29, p<.05$) 관계에 더 만족하였다.

마지막으로 남성과 여성의 관계개입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들을 살펴보았다. 남성들의 경우 관계개입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은 없었으며, 여성들은 상대 남성이 정서적으로 안정될수록($\beta=.31, p<.05$) 그리고 상대 남성이 여성적일수록($\beta=.27, p<.05$) 관계에 더 개입하였다.

성격특성의 유사성과 상호이해, 관계만족 및 관계개입의 관계

연인관계를 이루는 성원들의 성격특성이 서로 유사할수록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관계에 만족하며 개입하는지, 그리고 성격특성에서의 차이가 상호이해, 관계만족 및 개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성격특성과 상호이해, 관계만족 및 관계개입의 상관관계를 양자수준과 개인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양자수준의 분석 결과⁴⁾

4) 양자수준에서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경우 상관계수가 1.0 이상일 수 있다. 상관계수가 1.0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양자수준의 상관이 유목내 상

양자수준에서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연인들이 성격특성에서 서로 유사할수록 서로 더 잘 이해하며 관계에 만족하고 더 개입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양자수준에서 분석한 결과(r_d), 외향성과 호감성은 상호이해와, 전통적 성역할신념은 관계만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관계개입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성격특성은 없었다. 다시 말해서 연인들은 둘이 모두 외향적일수록($r_d=1.695$ 이므로 $r_{xy}^1=.21$ 로 대치), 그리고 호감성 수준이 높을수록($r_d=.58$)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를 이해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전통적 성역할신념의 수준에서 불일치할수록($r_d=1.29$ 이므로 $r_{xy}^1=.21$ 로 대치) 관계에 더 불만족하였다.

개인수준의 분석 결과

다음으로 개인수준(r_i)에서 성격특성과 관계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개인수준에서 상관관계를 분석하게 되면, 커플들 중에 상대적으로 특정 성격특성의 수준이 높거나 낮은 것이 관계변인인 상호이해, 관계만족 혹은 관계개입과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 알 수 있다. 분석 결과, 정서적 안정성은 상호이해 및 관계만족과, 이외에도 남성성과 전통적 성역할신념은 관계만족과, 그리고 여성성 및 전통적 성역할신념은 관계개입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10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인 성격특성들도 소개하면, 남성성은 상호이해와, 정서적 안정성은 관계개입과 .10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05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인 결과들을

관계수인 r_{xy1} (=자신의 예측변인과 상대의 준거변인 간 상관)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부분 유목내 상관계수 r_{xy1} 로 대치해서 해석해도 무방하다(자세한 내용을 참조하려면, Gonzalez & Griffin, 2000).

표 2. 상호이해, 관계만족, 및 관계개입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과 상대의 성격특성들(β)

성격특성	상호이해				관계만족				관계개입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자신	상대	자신	상대	자신	상대	자신	상대	자신	상대	자신	상대
외향성	0.241+	0.116	0.276*	0.184	0.217	-0.116	0.008	0.034	-0.050	-0.022	0.076	0.209
호감	0.353**	0.129	0.166	0.138	0.316*	-0.038	0.185	-0.065	0.152	-0.139	0.001	0.096
성실	0.111	0.310*	-0.013	0.264+	-0.003	0.229+	-0.009	0.151	0.019	0.113	0.035	-0.020
정서적 안정	0.161	-0.175	-0.027	0.218	0.107	0.070	-0.150	0.291*	0.008	-0.101	-0.016	0.306*
개방성	0.246+	-0.124	0.143	0.010	0.198	-0.235+	0.103	-0.101	0.111	0.152	0.051	-0.036
남성성	0.350**	0.036	0.242+	0.261*	0.280*	-0.058	-0.016	0.105	0.147	0.236+	-0.066	0.032
여성성	0.159	0.124	0.190	0.193	0.247+	0.091	0.085	-0.007	0.116	-0.103	-0.014	0.270*
성역할신념	0.246+	0.035	0.101	-0.052	0.080	-0.180	-0.270+	-0.088	0.114	-0.041	-0.257+	-0.000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연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더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r_1=.39, p<.05$)이 서로 대화를 더 많이 하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연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더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r_2=.29, p<.05$)과 더 남성적인 사람($r_3=.27, p<.05$), 그리고 더 보수적인 사람($r_4=.29, p<.05$)이 관계에 더 만족하였다. 그리고 연인 가운데 상대방보다 상대적으로 더 여성적인 사람($r_5=.29, p<.05$)과 보수적인 사람($r_6=.27, p<.05$)이 관계에 더 개입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성격을 구분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5개 성격특성과 관계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성역할 성향에 따라서 상호이해, 관계만족 및 관계에 개입된 수준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신과 상대의 5개 성격특성과 성역할 성향 가운데 어떤 성격특성이 상호이해, 관계만족 및 관계개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커플을 이루는 두 사람이 이 성격특성들에서 유사한 수준이 관계만족 혹은 안정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상호이해, 관계만족 및 관계개입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는 성격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보면 외향적인 사람일수록, 호감성 수준이 높을수록, 성실할수록, 그리고 남성적일수록 상대방과 대화를 많이 하며, 상대를 잘 이해한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외향적일수록, 호감성 수준이 높을수록 상대방과 대화를 많이 하며 상대를 잘 이해한다고 지각하였다. 상대방과의 관계에 만족하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과 남성적인 사람이었으며, 상대방이 전통적 성역할신념의 수준이 높을수록 관계에 불만족하였다. 관계에 더 개입하는 사람은 여성성 수준이 높은 사람이었다. 관계개입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상대방의 성격특성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상호이해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지니는 성격특성 가운데 관계만족과 관련되는 유일한 성격특성은 남성성 뿐이었으며, 관계만족과 관련되는 성격특성 가운데 관계개입과

관련을 보이는 성격특성은 없었다.

관계만족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자신의 5개 성격특성 가운데 정서적 안정성이 관계만족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자신이 정서적으로 안정적일수록 관계에 만족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연구들로서 Rogers (1999), Conditt(1999), Lester, Haig, 및 Monello (1989)의 연구, 그리고 국내 연구로서 오선주 (200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본 연구의 가정과 일관된다. 전통적 성역할신념이 높은 사람과 관계를 형성한 사람일수록 관계에 불만족함을 보인 연구 결과 또한 Kelly와 Conley(1987), 그리고 Whyte(1990)의 연구결과나 남편의 근대적인 태도가 부부 모두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최규련(1984)과 정승혜(198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성별로 구분하여 상호이해, 관계만족 및 관계개입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남성들은 자신의 호감성 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적일수록, 그리고 상대 여성이 성실할수록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를 잘 이해한다고 지각하였다. 반면에 여성들은 자신이 외향적일수록, 그리고 상대 남성이 남성적일수록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를 잘 이해한다고 지각하였다. 남성들의 호감성과 남성성은 관계만족에도 영향을 미쳐서 남성들은 자신의 호감성 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적일수록 관계에 만족하였다. 한편, 상대 여성의 성격특성은 남성들의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여성들의 경우, 자신의 성격특성은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에 상대 남성의 정서적 안정성이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쳐서 상대 남성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었을수록 관계에 더 만족하였다. 남성들의 관계개입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은 없었으며, 반면에 여성들

은 상대 남성이 정서적으로 안정될수록, 상대 남성이 여성적일수록 관계에 더 개입하였다

연구결과로 볼 때, 남성들의 상호이해에 영향을 미친 성격특성 가운데 남성 자신의 호감성과 남성성이 관계만족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들의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친 성격특성 가운데 상대 남성의 정서적 안정성은 관계개입에도 영향을 미쳤다.

관계만족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남성들은 상대 여성의 성격특성과 무관하게 자신의 호감성과 남성성 수준에 의해서 관계만족이 달라진 반면에 여성들은 자신의 성격특성과 무관하게 상대 남성의 정서적 안정성 수준에 의해서만 관계만족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5개 성격특성 가운데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의 성격특성을 성별로 구분해서 제안한 Buss와 Shackelford(1997)의 가설 가운데 정서적 안정성과 관련된 가설이 지지됨을 보여준다. 가설 가운데 상대 여성의 성실성이 남성들의 관계만족과 관련된다는 가설은 본 연구에서 남성들의 상호이해에는 영향을 미친 반면에 관계만족에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교체 중인 여성들은 상대 남성이 여성성 수준이 높을수록 관계에 더 개입하였다. 이 결과는 Houts, Robins, 및 Huston (1996)의 연구에서 상대의 실제 성과 무관하게 “여성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이 관계에 더 만족한 결과나 Bradbury, Campbell 및 Fincham(1995)의 연구에서 여성들이 상대 남성이 남성적 특성들을 덜 소유했을수록 관계에 더 만족하였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커플을 이루는 두 사람이 성격특성들에서 유사한 수준이 상호이해, 관계만족 혹은 관계개입과 관련되는지를 살펴보

았다. 연구 결과, 연인들은 두 사람 모두 외향적일수록 그리고 호감성 수준이 높을수록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를 이해한다고 생각하였으며, 두 사람 모두 보수적일수록 관계에 더 불만족하였다. 관계개입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는 성격특성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성격특성의 유사성 수준과 관계만족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를 보면 관계만족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는 유일한 성격특성은 전통적 성역할신념이었다. 연인들이 전통적 성역할 신념의 수준에서 서로 유사할수록 관계에 만족한 결과는 Craddock (1991)의 연구나 Swin과 Surra(199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 및 장차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국내의 연구들이 대체로 결혼한 부부들의 성격특성과 관계만족의 관련성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성격의 수렴성 문제 때문에 (Anderson, 2001) 관계만족에 기여하는 성격특성의 효과를 명확하게 살펴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교제 중인 연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 관계만족에 기여하는 성격특성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동일한 자료를 대상으로 성격과 관계만족을 다루는 두 가지 접근, 즉 관계만족에 기여하는 성격특성 및 성격특성의 차이를 모두 살펴봄으로써 다른 자료를 대상으로 얻어진 결과가 표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셋째, 개인의 성격을 개괄적으로 구분하는 구분법 이외에도 관계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넷째, 친밀한 이성관계를 형성한 연인들의 자료를 양자관계를 분석하는 틀로서 분석함으로써 양자관계의 자료를 개개 수준

에서 다룰 때 범할 수 있는 오류 없이 심층적으로 자료를 검토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5개 성격특성과 관련해서 커플의 유사성과 관련된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는데, 이는 이 성격특성들에서 대체로 서로 유사하지 않은 커플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인들이 성격특성에서 얼마나 유사한지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커플들의 호감성 수준이 .05 수준에서 서로 유사한 점을 제외하고 다른 성격특성에서는 서로 유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계만족이나 개입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성격특성이 서로 유사한 커플들이 많이 포함되었을 때 연구결과가 달라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참여한 연인들이 관계에 만족한 수준을 살펴본 결과, 남성들은 7점 척도로 측정된 결과에서 6.19, 여성들은 5.88로 관계에 상당히 만족하였다. 이러한 긍정 효과 때문에 관계만족과 관련되는 성격특성이 작았을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관계에 매우 만족해 하는 커플들을 제외하고 관계만족과 성격특성의 관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관계의 안정성을 직접 측정하지 않고 이를 예측하는 한 지표인 개입을 다루었다. 장차 연구에서는 성격특성을 측정하고 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다음 이들의 관계가 지속되는지 살펴보는 종단연구를 통해서 관계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성격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양희·정경아 (2000).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 (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23-44.
- 오선주 (2002). 본인과 배우자의 성격특성이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 남편과 부인의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0), 201-215.
- 이선희 (2000). 부부의 MBTI 성격유형의 유사성과 의사소통 및 결혼만족도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승혜 (1988). 부부의 성역할태도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진경 (1990). 한국 성역할 검사(KSRI). 한국심리학회 1990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57-67.
- 최규련 (1984).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2), 91-102.
- 이경성 · 한덕웅 (2003). 결혼만족검사의 개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 논문집, 294-295.
- Acitelli, L. K., Douvan, E., & Veroff, J. (1993). Perceptions of conflict in the first year of marriage: How important are similarity and understand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0, 5-19.
- Allen, A., & Thompson, T. (1984). Agreement, understanding, realization, and feelings understood as predictors of communicative satisfaction in marital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915-921.
- Bentler, P. M., & Newcomb, M. D.(1978). Longitudinal study of marital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1053-1070.
- Berscheid, E., & Walster, E. (1978). *Interpersonal attraction* (2nd ed.). Reading, MA: Addison-Wesley.
- Burgess, E. W., & Wallen, P.(1953). *Engagement and marriage*. Philadelphia : Lippincott.
- Buss, D. M. (1991). Conflict in married couples: Personality predictors of anger and upset. *Journal of Personality*, 59, 663-668
- Buss, D. M., & Shackelford, T. K. (1997). Susceptibility to infidelity in the first year of marriag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2), 193-221.
- Byrne, D., & Blaylock, B. (1963). Similarity and assumed similarity of attitudes between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 636-640.
- Conditt, K. M. (1999). The 16 Personality Factors and the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couples. *Dissertation-Abstracts-International: Section B: The Sciences and Engineering*. 60(4B), 1901
- Craddock, A. E. (1991). Relationships between attitudinal similarity, couple structure, and couple satisfaction, within married and de facto couples.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43, 11-16
- Daly, M., & Wilson, M. I. (1988). Evolutionary social psychology and family homicide. *Science*, 242, 519-524
- Ferreira, A. J., & Winter, W. D. (1974). On the nature of marital relationships: Measurable differences in spontaneous agreement. *Family Process*, 13, 355-370.
- Goldberg, L. (1981). Language and Individual differences: The search for universals in personality lexicons. In L. Wheeler(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2, pp. 141-165). Beverly Hills, CA: Sage.
- Gonzalez, R., & Griffin, D. (2000). On the statistics

- of interdependence: Treating dyadic data with respect. In w. Ickes and S. Duck(eds.). *The social psychology of personal relationships*. (pp. 181-213). John Wiley & Sons Ltd.
- Gottman, J. M. (1994). *What Predicts div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process and marital outcomes, Hillsdale, NJ: Erlbaum.
- Hahn, D.-W., Lee, K., & Ashton, M. C. (1999). A factor analysis of the most frequently used Korean personality trait adjectiv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3, 261-282.
- Houts, R. M., Robins, E., & Huston, T. L.(1996). Compatibility and the development of premarital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7-20.
- Ickes, W.(1993) Traditional gender roles: Do they make, and then break, our relationship? *Journal of Social Issues*, 49, 71-86
- 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2001). A Scientific Collaboratory for the Development of Advanced Measures of Personality Traits and Other Individual Differences(<http://ipip.ori.org/>). Internet Web Site.
- Kelly, E. L., & Conley, J. J. (1987). Personality and compatibility: A prospective analysis of marital stabi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27-40
- Lester, D. Haig, C., & Monello, R. (1989). Spouses' persona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2), 253-254.
- Levinger, G. (1979). A social exchange view on the dissolution of pair relationships. In R. L. Burgess & T. L. Huston(Eds.), *Social exchange in developing relationships* (pp. 169-193). New York: Academic Press.
- McAllister, I. (1992). Marital satisfaction in Australia: A path model. *Australian Journal of Sex, Marriage and Family*. 7. 199-206.
- Murstein, B. I. (1970). Stimulus-Value-Role: a theory of marital choi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465-481.
- Norman, W. T. (1963). Toward and adequate taxonomy of personality attributes: Replicated factor structure in peer nomination personality rating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574-583.
- Rogers (1999). Marital satisfaction as it relates to similarity versus complementarity in personality dimensions. *Dissertation-Abstracts- International-Section B: The Sciences and Engineering*. 60(4B), 1917
- Rusbult, C. E. (1983). A longitudinal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The development (and deterioration) of satisfaction and commitment in heterosexual invest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0, 101-117
- Rusbult, C. E. (1980). Commitment and satisfaction in romantic associations: A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6, 172-186.
- Rusbult, C. E., & Buunk, B. P.(1993). Commitment processes in close relationships: An interdependence analysi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0, 175-204.
- Shackelford, T. K. (1997). Cues to infide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10).
- Shackelford, T. K., & Buss, D. M. (1996). Betrayal and the design of the mind. In J. A. Simpson & D. T. Kenrick (Eds.), *Evolutionary*

- social psychology* (pp. 73-107). Mahwah, NJ: Erlbaum.
- Simpson, J. A.(1987). The dissolution of romantic relationships: Factors involved in relationship stability and emotion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683-692
- Thibaut, J. W. & Kelley, H. H.(1959). *The Social Psychology of Groups*. New York: Wiley.

K C I

The effects of personality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commitment among couples

Kyungseong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within couples on mutual comprehension,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commitment. Participants were 58 dating couples. Each subject responded to the IPIP(extraversion,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neuroticism, openness/intelligence), sex-role(masculinity, femininity, gender egalitarianism scale), and relationship measures(mutual comprehension, relationship satisfaction, relationship commitment). First, we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ity and similarity and relationship measures. It turned out that couples' extraversion and agreeableness were correlated with mutual comprehension, and couples' gender egalitarianism index were correlated with relationship satisfaction. We did further analyses on personality factors that appeared to influence mutual comprehension,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relationship commitmen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in case of men, agreeableness and masculinity played significant roles in mutual comprehens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case of women, extraversion was crucial to mutual comprehension and the neuroticism of partner was also important to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commitment.

key words :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ex-role, mutual comprehension, relationship satisfaction, relationship commitment*

부록 1. 측정도구의 내용

1. 5요인 :

- (1) 외향성(extraversion, $\alpha=.86$) :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도 위축되지 않는다,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편이다, 사고 모임에서 여러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다, 모임에서 나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모르는 사람들과 있을 때는 과묵해 진다.
- (2) 호감(agreeableness, $\alpha=.78$) :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이해하는 편이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잘 낸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낀다.
- (3) 성실(conscientiousness, $\alpha=.79$) :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한다, 일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열심히 한다, 내 물건들을 잘 정돈하지 않는 편이다, 물건들을 사용한 후에 제자리에 두는 것을 잘 잊는다.
- (4) 정서적 안정(neuroticism, $\alpha=.88$) : 우울함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쉽게 불안해진다,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마음이 쉽게 심란해진다, 화를 잘 내는 편이다, 기분의 변화가 심하다.
- (5)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alpha=.79$) : 상식이나 어휘를 많이 아는 편이다, 상상력이 풍부하다, 훌륭한 아이디어를 낼 때가 많다, 이해가 빠른 편이다, 여러 아이디어로 가득차 있다.

2. 성역할 성향 :

- (1) 남성성($\alpha=.87$) : 믿음직스럽다, 남성적이다, 강하다, 자신감이 있다, 박력이 있다, 독립적이다, 씩씩하다, 야심적이다, 의욕적이다, 자신신념을 주장한다, 의지력이 강하다, 대범하다, 집념이 강하다, 의리가 있다, 지도력이 있다, 결단력이 있다, 모험적이다.
- (2) 여성성($\alpha=.88$) : 친절하다, 온화하다, 부드럽다, 상냥하다, 따뜻하다, 인정이 많다, 다정다감하다, 유순하다, 싹싹하다.
- (3) 전통적 성역할신념($\alpha=.79$) : 대체로 남편이 가족에 대해 더 큰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가족 경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 아이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 아내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정주부의 역할이다, 여자의 본분은 자녀를 키우고 집안 일을 돌보는 것이다, 아내의 외도는 남편의 외도에 비해 더 심각한 문제이다, 결혼한 여자는 친정보다 시댁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서 똑 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결혼한 여자가 친정부모를 모시는 것은 시집식구에게 미안한 일이다, 결혼한 아들이 부업일을 하는 것을 찬성한다, 집안 일에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자녀가 잘못됐을 경우 엄마의 책임이 아버지보다 더 크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아이가 아프다면 남편도 결근을 하고 아이를 돌봐야만 한다, 결혼한 남자는 처가 쪽의 대소사도 자기 집과 똑 같이 챙겨야 한다.

3. 상호이해, 관계만족, 및 관계개입 :

- (1) 상호이해($\alpha=.85$) : 우리는 서로 속마음을 터 놓고 이야기하는 편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느낀다, 나는 _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다, 우리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를 잘 이해한다, 때때로 나는 _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한다, 나는 매우 슬픈 감정도 _에게 거리낌없이 표현할 수 있다, _는 나에게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우리는 마음이 잘 통한다, _는 때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하지 못한다이다.
- (2) 관계만족($\alpha=.89$) : _와 함께 하는 동안은 행복하다, _와 지내는 것은 권태롭다, _와 사귀으로써 내가 바라던 것들이 충족되었다, 나는 _와 사귀게 된 것을 후회한다, 나는 현재 _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나는 마치 못해 _와 사귀다, 나는 현재 _와 사귀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_이 지겹다, _를 만난건 행운이다.
- (3) 관계개입($\alpha=.75$) : 나는 _과의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다, 내가 _과의 관계를 끝내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만약 _과 헤어지더라도 나는 다른 사람과 사귄 수 있다, 나는 _과 익숙해져서 헤어질 엄두가 나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과 사귄 생각이 있다, 나는 _과 헤어지기가 어렵다, 나는 _과 미운정 고운정이 들었다.